

‘일하는 사람의 인권’ 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개의 진료실 가이드

노 동 건 강 연 대

일하는 사람의 인권에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개의 진료실 가이드

노동건강연대

‘일하는 사람의 인권’ 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개의 진료실 가이드

노 동 건 강 연 대

‘일하는 사람의 인권’ 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개의 진료실 가이드

노 동 건 강 연 대

목차

05

들어가며 1 젊은 변호사의 편지

들어가며 2 병원에 간 날

29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 개의 진료실 가이드

72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들려주는
진료현장이야기

82

[부록] 산재노동자 이야기

신이 한 손가락은 남겨주신 뜻
- 노동자 한○철의 이야기

내 시간은 그 봄에 멈춰있어요
- 노동자 박○일의 이야기

124

[참고]

한눈에 보는 산재보험 신청절차



들어가며 1

젊은 변호사의 편지

A의 일기

2. 3.

거래처에 다녀오다가 발목을 삐끗했다. 다칠 때는 몰랐는데 점점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진다.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가봐야겠다.

2. 4.

의사 선생님이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라며 반깁스를 해준다. 깁스를 하고나니 발목이 흔들리지 않아서 기어다닐 수도 있고 한 쪽 발로 콩콩 뛰어다닐 수 있어서 훨씬 편하다.

2. 5.

회사에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사장님께 출근을 했다고 인사를 드리니, 언제 다 낫는지부터 묻는다. 웃으며 산재 아니라고, 언제 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일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사무실 출근 시작한지 이제 겨우 4달인데, 빨리 나아야 할 텐데.

2. 6.

다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바닥에서 일어났다. 보기는 좀 안 좋지만, 문틀을 양 손으로 잡고 나무 타듯이 오르며 일어나면 된다. 이제 화장실에 혼자갈 수 있다.

2. 20.

모든 일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사무실 내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돌려 방문을 열고, 다시 몸으로 밀어서 유리문을 열고,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는 철문을 몸으로 밀어야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살짝, 잠깐,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과장이 언제 깁스를 푸는지 묻는다.

2. 28.

목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제 간신히 한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다.

3. 5.

평소보다 카드값이 훨씬 많이 나왔다. 병원비는 의료보험 덕에 많이 들지 않는데, 택시비랑 휴대전화 요금이 만만치 않다. 오늘은 지하철 타기를 시도해 보았는데, 느리게 걷다보니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고, 한 번씩 쳐다보고 간다.

3. 18.

온몸이 피곤하다. 부딪힐 만한 물건이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긴장하고 있으니, 집에 들어오면 매일 온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다. 반대쪽 발이랑 무릎, 허리, 고관절도 아프다. 병원에서는 다리 치료가 끝나면 척추교정을 받으라고 한다.

4. 7.

과장이 부쩍 짜증을 낸다. 아픈 게 죄란다. 사무실에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뻔뻔하단다.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나도 사무실에 미안하다. 그래도 출장도 가고 잔심부름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바로 옆에서 산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목과 무관해 보이는 일기에 놀라셨는지요, 직업성 암이나 유해물질 누출사고 같은 큰 사건도 많은데 발목을 빼끗한 사무직 노동자 이야기라 좀 싱겁습니다. 산업재해는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에서 써본 가상 일기입니다.

거래처에 다녀오다가 발목을 빼끗했다면 산재입니다. 산업재해라는 말은 우리에게 대형 공사현장의 추락사고나 붕괴 사고, 산업공단의 유해물질 누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위 주인공의 경우처럼 사소한 사건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서도 산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를 문제 삼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 덮는 일이 많을 뿐,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산재가 일어납니다.

산재는 일을 하다 일어난 사고, 질병만이 아니라 원래 질병이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과다한 직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산재라고 봅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쳐다보느라 눈이 나빠지면, 진상 손님 상대하다가 탈모가 생긴다면, 바이어와 과음하다가 간이 나빠진다면 산재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던, 나이가 많던 적던, 일의 숙련도가 높던 낮던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산재를 입습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보통 야간이나 휴일근무가 일반화되어

과로가 당연시되고, 책임의 정도가 커서 긴장감이 높으며, 지속적인 학습이 있어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로, 만성피로, 긴장, 두통, 어깨결림, 스트레스, 불면증이란 말을 달고 사는 전문직도 늘 산재와 과로사 위험이 있습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더 두려운 것은 질병과 사고 이후의 생활입니다. 산재는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모두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업한 변호사인 저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도 생계를 유지하느라 아프다면 이것이 산재이고 직업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무거운 목덜미와 어깨, 어머니의 무릎, 선생님의 빠근한 손목, 저의 거북목 모두 일을 하고 있기에 아픈 것이니 말입니다.

누가 아플 때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환자가 진료실을 방문한 것이 하는 일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후로는 산재와 직업병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산재와 직업병은 우리 곁에 함께 하는 흔하고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들어가며 2
병원에 간 날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야기는 평소 산재상담을 많이 하는 노동단체에서 보내준 사례를 모아서 재구성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인적사항 등은 허구이지만 의사와 노동자가 나눈 대화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양보호사 이혜미씨 이야기



46세의 이혜미씨. 그녀는 평소 봉사하는 걸 좋아한다. 주말이 되면 일부러 복지단체를 찾아가기도 할 만큼 열정도 있다. 삶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소개하며 요즘 많은 중년 여성들이 따는 자격증이라고 했다.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한다.

혜미씨는 지금 다니고 있는 마트 캐시 일을 그만두고 싶던 참이었다.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어 화장실은 참기 일쑤였고, 앉아있지도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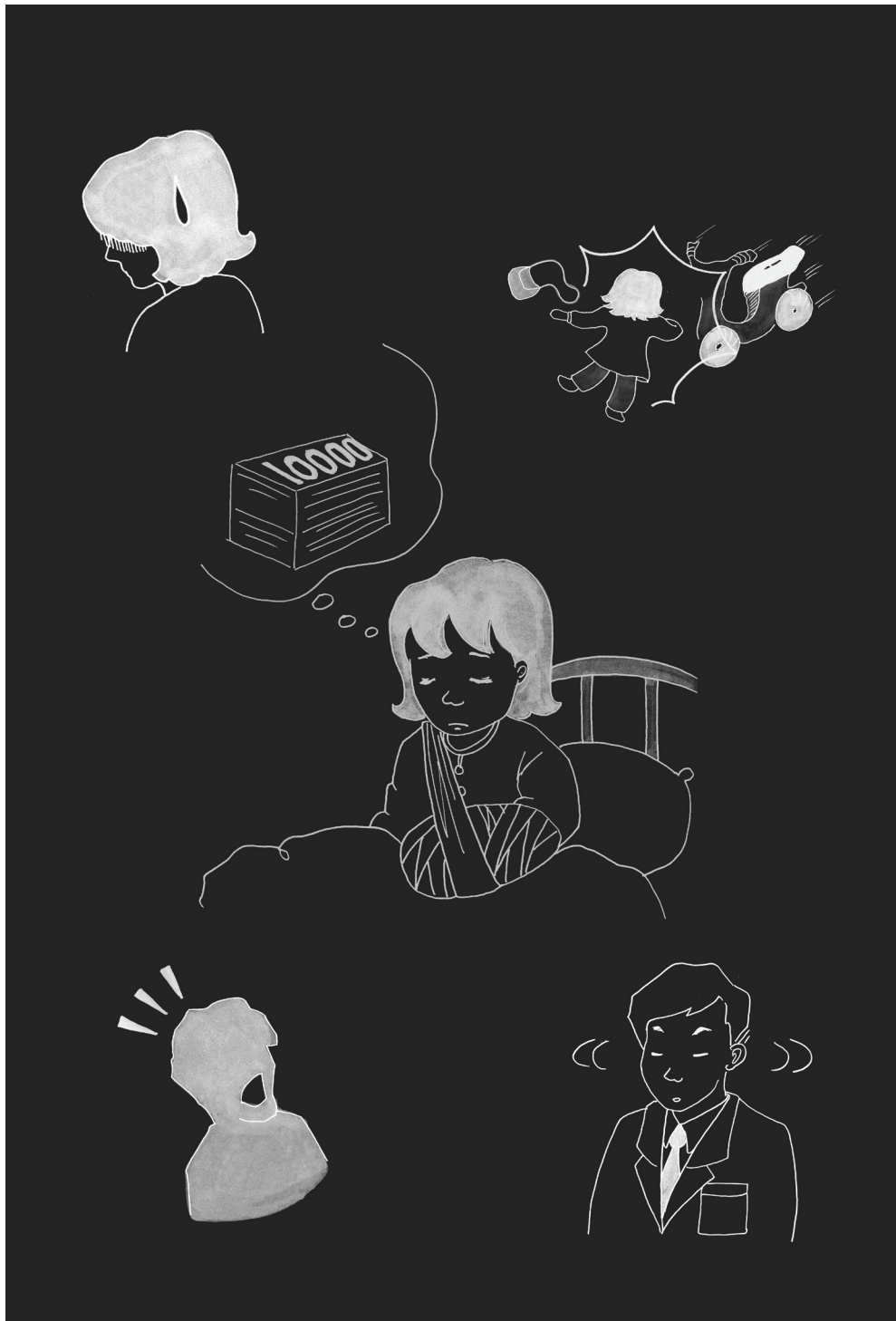
8시간 넘는 시간을 꼬박 서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다가 가끔 나타나 는 진상손님들 때문에 감정을 추스릴 여유조차 없다. 하지정맥류를 앓는 동료들도 있다.

마트 캐시 일을 그만둔 혜미씨는 꽤 많은 학원비를 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다. 동네 요양보호사 사무실을 통해 가정방문을 하게 된 그녀. 함께 자격증을 딴 그녀의 친구와 함께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지 일년이 지날 무렵 그녀는 병원신세다. 병원에 누워 지난 일년을 생각하면 마트캐시 일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배추를 쌓아둔 한 노인들은 김치를 하라 했다. 그렇게 몇 집의 김치를 해줬을까. 중간 중간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집안일에, 남자 노인이 있는 집에 갈라치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하다. 하의를 모두 벗고 있던 남자 노인 때문에 큰일을 겪을 뻔한 동료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그냥 가사도우미였다. 바쁘게 다니던 방문가정 이동 중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골목길을 뛰어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인 것이다. 다리엔 깁스를 했고, 온 몸이 육신 거린다.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잠도 안 왔다. 요양보호사 센터에선 조심하지 그랬냐며 말이 없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다. 노동상담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고, 당연히 산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었다.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니, 다행이었다. 더 아픈데가 있냐 묻길래, 허리도 어깨도 온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근골격계질환이 아닌가



말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우선 의사에게 상의를 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직업병으로 골병이 든 것이 근골격계질환이라고 하는데 소견서를 써주면 산재신청을 해 보겠다고 의사에게 말해보았다.

그런데 의사가 난감해한다. 꺾끄러워 한다. 그냥 교통사고 아니었다고 소견서 같은 거 꼭 해줘야 하나고 묻는다. 일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도 설명하며 몇 번의 사정 끝에 자료를 갖춰 산재신청을 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몸이 조금 좋아지는 듯 하지만 아직 생활을 편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다리는 산재승인이 되었지만, 근골격계라 불리던 근육통은 산재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 따로 돈을 내고 치료 중이다. 의사는 근육통도 소견서를 같이 써주었지만, 결국 안됐다.

산재보험의 요양기간이 며칠 안 남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가로 진료계획서를 내라고 한다. 또 다시 의사와 힘든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의사의 진료계획서라니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보험이라면서 너무 환자와 의사에게 일을 다 맡겨버리고, 환자가 준비해야 하는 일이 힘들다는 생각에 주눅이 든다. 상담소의 상담자는 추가 진료계획서는 의사들이 많이 귀찮아 하지만 사정을 잘 아니 잘 써주실 거라고 다독여줬다. 가끔 절대 안 써 주는 의사도 있긴 하지만, 설마 그러겠냐 한다. 다행히 담당 의사는 별 말 없이 추가 진료계획서를 써줬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산재치료가 끝나면 다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된다.

용접공 김경식씨 이야기



김경식씨는 언제부터인가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세밀하게 동작해야 하는 부분의 장애를 느끼기 시작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원을 찾은 그는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았다.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 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어디선가 들었다며 산재신청을 해보자고 했다. 그는 15년간 용접공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파킨슨씨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그는 아들과 함께 한 노무사를 찾는다. 그리고, 용접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망간

용접봉이 파킨슨씨병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산재법 시행령을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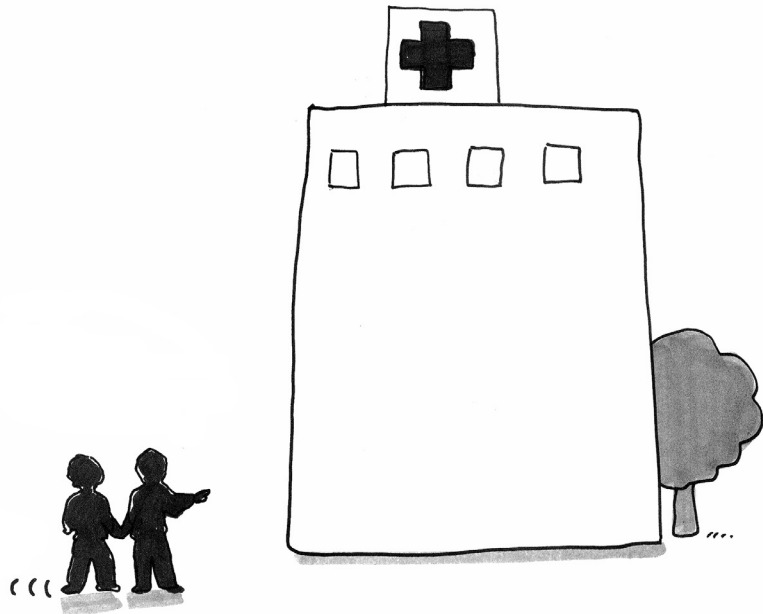
몇 년간 그를 치료했던 의사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었다. 노무사가 말했다. ‘의사가 직업을 물어봤다면, 초기에 산재신청을 해봤을텐데 말이죠’ .

김경식 씨는 파킨슨씨병으로 인해 삶이 크게 변화한다. 병원비가 무섭게 들기 시작했고, 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몇 개의 일을 동시에 하기 시작했고, 그는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아들은 어떻게 용접일이 파킨슨씨병을 일으킨다고 알게 됐을까. 친구와의 술자리에 같이 나온 친구의 지인이 노무사였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질병이나 사고, 건강상태가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도 운이 좋아야 의사의 권유로 산재요양 신청을 하는데, 그런 행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후 김경식씨는 산재신청을 위해 노무사와 함께 주치의를 만났다. 초진소견서가 필요했고, 의무기록지, 필름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다. 주치의는 김경식씨의 설명을 듣더니, “일 때문일 수도 있나보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데 업무 때문이라고 어떻게 쓰죠? 병명이 뭔지는 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나눌 때 같이 오신 분은 좀 나가 계시면 좋겠네요. 불쾌합니다.”

그래도 꾸준한 치료 때문에 자주 본 의사였다. 바빠 돌아가는 대학병



원이었지만 늘 상냥했던 그였다. 의사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라 했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온 노무사는 의사에게 다시 부탁을 해본다.

억울해하는 김정식 씨를 위로한 노무사는, 병원에 가게 되면 꼭 문진할 때 직업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라고 알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 같은 서류들이 산재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정식씨는 직업병 소견서를 왜 안 써주는 걸까 불안에 휩싸여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참임을 새삼 깨달았다.



초진소견서 의무기록지 필름...
갖고 오라는 서류는 많은데



안전운 생명

위험!

낙하물주





'일하는 사람의 인권' 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 개의 진료실 가이드



가이드 #1
가이드 #1
가이드 #1
가이드 #1
가이드 #1
가이드 #1

인권

건강할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 '알 권리' 도 인권

“피부색, 타고난 신체조건, 집값, 사는 동네, 직장이나 대학 간판, 연줄, 월급 액수에 관계없이 아프면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건강해질 권리가 있다.” 제가 어느 책에 쓴 말입니다.

유엔 인권선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에서 통용되어온 원칙이면서 우리 헌법에서도 문구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른 사회적 조건에서, 아프면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 수준이 동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체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동등한 건강 수준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건강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느냐 예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사회가 제공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격차를 줄여서 집단 수준에서 건강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건강권의 국제적 표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개인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구제할 권리’가 있다는 소극적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환경으로 인해 나의 건강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당연한 나의 권리입니다. 유해환경, 유해물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본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위험이 예상될 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적 권리입니다.

인권은 개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사회,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고, 사회보장에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권리가 산재보험입니다. 초창기 산재보험은 산재가 너무 많이 일어나 생기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생겼지만, 지금 선진국은 산재보험을 인권의 차원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가 치료받고, 재활하고, 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복지입니다.

우리의 산재보험은 아직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라고만 계산합니다. 노동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산재가 적용되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 산재를 입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정기준에 맞아야만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포기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초기 대응을 놓칩니다. 제 때에 치료와 재활이 안 된 상태에서 직장으로 돌아가고, 반복적으로 아프게 되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노동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을 받거나, 건강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무엇을 적용하더라도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건강보장책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근로계약 #2

계약

일 하면서 아픈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만,
근로계약에 노동자의 건강을 침해해도 좋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2

우리 사회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이슈 중 하나가 노동자의 건강입니다. 뉴스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친 노동자의 소식을 접하면, 안타까우면서도 ‘조심하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노동자 건강에 대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면 노동자가 일하다가 탄 생각을 하면 떨어지거나, 기계에 끼일 수 있으니 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다가 탄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탄 생각에 빠지거나 실수를 합니다. 탄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은 기계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할까요. 탄 생각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계를 만들 때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기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져도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스

작동법을 모르는 사람이 프레스를 잘못 만진다고 해서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숙련노동자가 기계를 만져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일하는 바람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노동자가 많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사실 의사들의 노동강도로 따져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월급을 받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는 대신 사업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작업환경이 내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장에서의 건강침해를 용인한다거나, 노동자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이며, 계약 자체가 무효일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가이드

#3

확률

다치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온 노동자의 50% 이상은 산재. 그러나 당사자가 알고 신청하기 전에는 산재보험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직 이건, 사무직이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온다면 50% 이상은 직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상이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온 환자의 다수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할 손상 환자수가 일 년에 100만 명이 넘는 반면, 실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는 7~8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환자가 처음 의료기관에 올 때, 산재가 구분되어 의료기관에서 보증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산재임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후에도 모두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여 한 번 더 거르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10%도 안 되는 노동자만이 산재보증을 받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만 가까운 시간 안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지금이라도 환자가 오면 산재 여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온 환자, 허리나 어깨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온 환자가 있다면 산재임을 일단 의심해보았으면 합니다.

임시직이든 알바생이든, 일을 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진료비 뿐 아니라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가들이 노동자의 치료권을 뺏지 않도록 주치의의 소견을 환자에게 제공해주십시오. 주치의의 소견조차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에 의사의 소견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직업

일하는 사람에게 직업은 가장 강력한 질병발생요인
열다섯 송면이의 병명을 찾아낸 한마디 '무슨 일을 했나'

가이드 #4

직업

#4

문송면 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1988년, 당시 15세 소년 문송면이 이유를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K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데 의료진은 송면이가 아픈 이유를 찾지 못했고, 위독한 상



태가 되자 S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문송면은 ‘수은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 판정을 받은 후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보건의료인이 산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문송면을 기념하여 7월 초에 모란공안에 모여 조출한 추모행사를 갖습니다.

송면이가 병원에 갔을 때,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S대학병원 주치의가 ‘송면이가 무슨 일을 했나’ 물어본 것입니다. 15살 송면이는 낮에 온도계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직업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강력한 질병발생요인입니다. 연구를 통해 특정 직업과 질병간의 관계가 계속 규명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직업력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특성입니다.

가이드 #5

60%

달라지는 산업구조,
서비스업노동자도 건설업 노동자만큼 위험하다

60%

#5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에 종사자는 60%가 넘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산재율은, 일반 제조업보다도 높고,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건설업과 비슷합니다.

서비스업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건설업과 비슷한 산재통계를 보이는 것은, 산재가 특정 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산재를 제조업, 건설업 같은 과거 산업의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의 비중이 커지면서 직업 관련 만성질환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다뤄져야 할 특성입니다.



감정노동

#6

서비스업 노동의 특성은 바로 소비자를 만나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직업병이 생산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였다면 현재 문제는 소비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생산의 지점에서는 공정, 작업 조건, 환경 등에 영향을 받지만, 소비의 지점에서는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주로 생깁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기에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합니다. 의사 역시, 환자와 대면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습니다. 감정상태에 반하는 과도한 친절을 강요하는 현실이 반복되면 우울증,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간병 종사자, 콜센터 노동자, 할인마트 계산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환자의 직업을 확인하고, 서비스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GUIDE #7 아이디어

시기

건강보험과 달리 당사자가 신청하는 산재 제도가 초기 진료를 막는다. 산재환자는 건강이 악화된 후에 병원에 온다

시기

#7

어떤 의사들은 환자가 산재 진단을 원하면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산재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가에게 가게 됩니다. 의사는 오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립했기에 질병진단, 치료계획, 치료행위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강보험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산재환자에 대해서만은, 의사의 판단을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청구절차를 거쳐야만 산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진료 단계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다가 병이 악화되거나,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과 다른 산재제도가 초기대응을 막고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을 건강보험체계와 동일한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구조가 동일해 질 때, 최초진료에서 의사의 역량이 강화되고 환자가 보호받을 것입니다.



가가가가

이이이이 이드드드드

#8#8#8

진료실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진료실에서 불만을 터뜨린다.
진료실이 숨쉬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건강 문제는 병태생리적으로 보면 외부 인자에 의한 인체기능 및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변화가 발생하는 데에는 주변 환경의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측면을 봐도 병태 생리적 문제를 치료한다고 해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문제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 몸에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진료실에 오면, 신체의 기능 및 구조문제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산재환자는 더 그러합니다. 산재환자는 본인에게 닥쳐온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환자 중에는 피하고 싶은 환자도 많습니다. 산재환자의 태도는 정당하지 않지만, 그러한 태도 자체가 진료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진료실마저 없



다면, 제도에서 배제되고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숨 쉬고 소통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정말이지 절망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료실이 분노를 표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받아들여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진료실에서 좀 더 관대하게 산재환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일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문제를 본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이드 가이드

#9#9

시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산재로 오는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길어진다. 재활·직장복귀 정책이 없다

산재 환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입원해 있고, 병원 분위기를 흐리는 환자들이 있어서 생각을 바꾸었다는 의사가 많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환자가 퇴원을 하지 않으려 하는 주된 이유는 직업재활과 직장복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입원 자체가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픈 노동자를 생각해봅니다. 처음부터 그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면 오래 입원할 필요가 없고 직장복귀가 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도 많고 상병수당(휴업급여)도 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서둘러 끝내거나 중단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제때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증증도가 더 커진 상태로 병원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산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옵니다.

재활, 직장복귀가 중요하다고 해도 현행 제도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재환자는 입원이라도 해서 휴업급여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온 좋게 보상을 받고 있어도, 동시에 직장복귀를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가이도 #10
가이도 #10
가이도 #10

독일

응급실에서 재활계획이 시작된다

독일

#10

산재 환자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치료결과입니다. 최초 치료 단계에서 환자가 돌아갈 직업이 무엇인지 보고, 직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어떤 치료계획이 필요한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독일이나 선진외국의 경우 산재환자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실이나 진료실로 온 단계부터 각 분야 의료전문가가 모여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척박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환자가 오면 직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재활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산재환자를 만났을 때에 기억했으면 하는 10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법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의료인의 따뜻한 시선이 산재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시선이 확장될 때, 우리 사회의 인권도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 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들려주는

진료현장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J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일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의 60%는 임금노동자라고 J선생은 말합니다.

의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낫는다' 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는 매우 당황한다고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이가 들려주는 진료현장 이야기

의사들은 산재 노동자라고 하면 언론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도덕적 해이’ 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귀찮은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도 어떤 산재노동자들은 화를 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산재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 아프고 일하는 것을 바라는데요, 현재는 산재급여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의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줬음 좋겠어요.

아프면 바로 치료받거나, 위험작업 요인이 개선된 상태에서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진 않을 테니까요.

의사 입장에서는 서류 쓰는 일이 복잡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

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서류작성에 쓰는 번거로움 이런 게 있거든요.

병원에 온 노동자들이, 일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만큼 치료효과가 좋은 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노동의 의미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은 만성적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아프다는 것을 호소하죠. 근데 의사는 이걸 피병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성 통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 때문에 통증의 역치를 낮추게 되는데 의사들이 볼 땐 과장되게 아프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산재와 관련해서 의사를 찾아오면 의사 입장에선 일단 번거롭죠. 그건 사실이에요. 서류를 써줘야 하니까. 그게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고, 그 바쁜 일상 중에서 쓴다고 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좋아하는 업무가 될 수 없죠.

그리고 후배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사한테 오는 환자의 60%가 임금노동자라는 점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은 자동차 공장에 순회점검을 하러 갔는데, 나를 부르더니, 팔목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노동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도 안 되는 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통증이 왜 생겼는지를 물어보지만,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를 배우거든요. 반복 작업으로 인한 손목의 염좌는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을 도와주고, 통증관리 하는 것이 치료인데, 그 사람은 하루에 2천 번을 손목에 힘을 주어 누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안 낫고 자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원인불명의 난치병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인불명 난치병이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여기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당사자가 갖고 있는 학력, 직업 등을 이해한 후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원인불명 난치병으로 이해하진 않았죠. 결국 그 노동자는 회사랑 얘기가 잘 돼서 다른 일로 전환하고, 그 업무는 유해 작업이니까 교대로 작업하도록 작업장을 개선하고 좋은 결과로 끝났어요.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임상 의사가 어떻게 작업 중재를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왔는데 제가 마대, 쓰레기줍기, 걸레질을 번갈아가면서 해라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그러니까, 마대 2시간 씹박하게 하고 걸레질 2시간 하고 이러면 아픈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해, 이정도만 말해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 분들은 제발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해요. 진료 받으러 온 분들이 일해서 아픈 건 아니니까 일을 그만둬야 낫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너무 서운하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뭐 먹고 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만둘 순 없어도 일단 조정할 수 있는데 까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면 근골격계 질환은 쉬는 게 가장 큰 치료니까요.

직업병판정을 하는 의사들은 사회봉사하는 생각으로 옵니다. 엄청난 성의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직업병판정을 하는 선생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판단과 자연과학적 판단을 헛갈리는 것 같습니다. 직업병 판정은 사회적 판단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근거해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충분히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개인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려고 해요. 심혈관계질환 같은 경우 본인이 평소에 술 안 마시고 운동 잘하고 했으면 직업병 인정 해주고, 평소에 치료 안 받고 담배피고 술 마시면 인정 안 해 주고, 이것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같은 경우 도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살에 이를만큼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을 겪었냐, 근데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인 거고, 오랫동안 유병 기간이 있었나 등이 다른데, 평균적 인간에 비추어 심지어 도덕적 판단까지 곁들여서 직업병 판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가장 걸립니다.

일단 사회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인데, 그 부분이 자꾸 사회적 합의를 어겨가면서 본인의 개인적 소신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산업의학 전문의는 규정에 의해서 60시간 초과근무 한사람은 해주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바다 이렇게 말을 해도 기각을 해요. 직업병판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업병판정을 하는 의사들은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마음과 전문성이 기존에 알려진 지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자신의 분야에만 국한된 판단을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록] 산재노동자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신이 한 손가락은 남겨주신 뜻

(노동자 한○철의 이야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원 한○철 씨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한○철씨는 서울 구로동 <세진정밀-지금은 폐업-> 이라는 공장에서 두 번에 걸친 사고로 양손을 잃었습니다. 슬픔으로 괴로워 하던 시간, 산재노동자들이 모여들던 구로동의 분위기, 의대 학생들이 산재노동자를 찾아오던 연대의 추억, 우연히 우편발송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 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신이 한 손가락은 남겨주신 뜻 노동자 한○철의 이야기

고아 한○철

이름은 한○철, 63년 3월 12일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출생미상이예요. 84년 호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신분 없이 다녔어요. 우연히 식당아줌마한테 얘기했더니 ‘살던 고아원을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갔더니 고아원에 서류가 없어요. 대부분은 서류가 있는데 나는 없어요. 고아원에는 10살때 까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아원에 딸린 전답이 많아서 어린데도 농사일에 바빴어요. 자던 곳이 마룻바닥인데 겨울에 찬 바닥에서 자고, 학교 끝나면 농사일 했어요. 항상 허기지고 일을 많이 하니 맨날 친구들이랑 도망쳐서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 감자, 생콩을 도둑질해서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와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돈을 받

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새벽 5시부터 밤12시까지 일했어요. 15살까지 그런 생활 했어요. 지게질을 많이 해서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고무신에 양말 한 켤레로 살았어요. 한 겨울에 무릎까지 눈에 쌓여서 일하니까 발에 동상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도망을 나와서 구두닦이도 하고, 정비공장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왔어요. 완행타고 12시간을 왔어요.

서울생활

용산역에서 중국집 배달원 일을 구해서 장승백이에 정착했어요. 거기서 중국집 배달을 열심히 했어요. 일 년 배달 일을 하니 어떤 양반이 영등포에서 개업한다고 스카웃해서 갔어요. 81년이었어요. 영등포에서 일하다가 장승백이, 방배동, 여기저기 중국집, 한식 배달 일을 하다가 주방 그릇 닦이를 시작했어요. 외식전문이라 주말에는 1만개 이상을 닦아요. 주방 보조를 거쳐서 주방일 배우기 시작하다가 주방장이랑 싸우고 나오고, 광명시로 가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 다음에는 영등포 역전의 고깃집에 들어갔어요. 그 식당에서 수양엄마도 만났어요. 그분은 한때는 잘나가던 집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집안 기울어서 딸 둘에 아들하나 있는데 내가 아들이 되어 엄마엄마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식당을 그만두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세진정밀이라는 프레스공장이었어요. 학력이 없으니 빙빙 돌다가 이 회사를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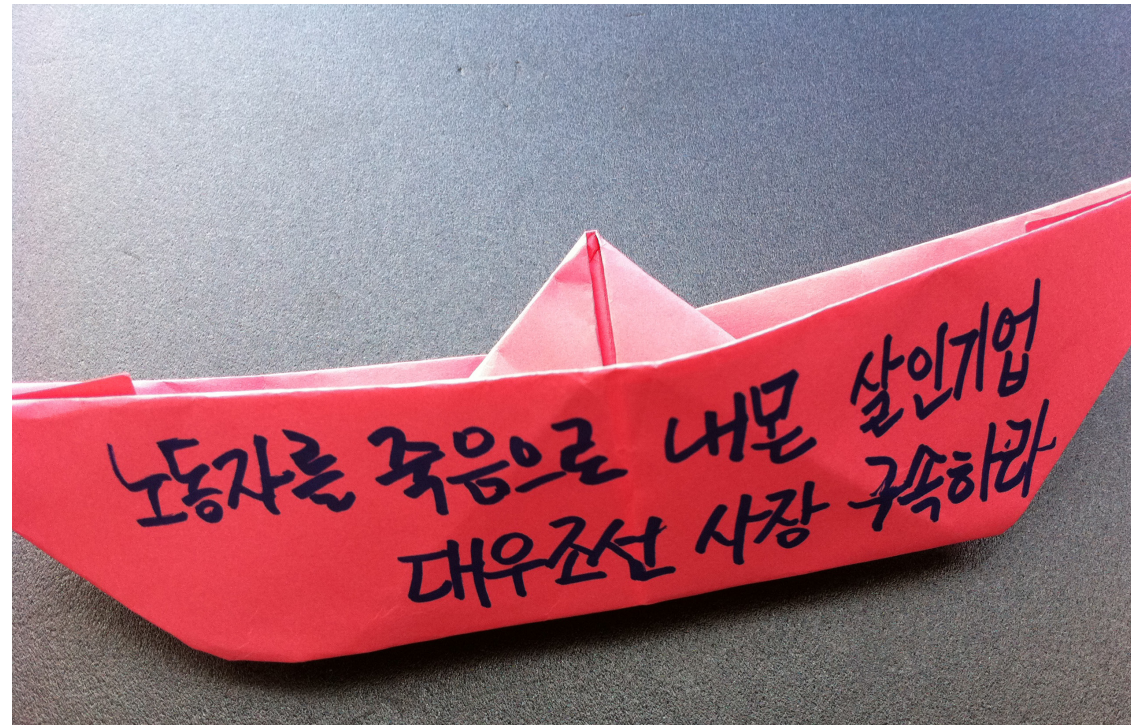
되었는데, 학력이 상관없는 곳이니깐. 3개월은 있어야 프레스기계를 주는데 내가 남들보다 한 두 시간 일찍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보름 만에 기계를 내줬어요. 혼자 프레스기계 잡고 일당 3000원 받고 일했어요. 잔업 조금씩 하고 그러니 한 달에 10~15만원 벌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수양엄마랑 살게 되었어요.

그때 프레스 업종은 일이 많았어요. 고급화가 덜 된 상태라 일이 어마어마했어요. 85년부터는 한 달에 잔업을 180시간을 했어요. 평상시는 새벽 2~3시에 끝나고 금토일은 무조건 철야.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수양엄마 아프고 일도 못하니 더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양엄마 친 자식들, 형이랑 누나가 자기들끼리만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간대요. 내 얼굴은 한번 안보고 자기들끼리 고기 사먹고 간대요. 그때 회사 아줌마들이 다들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죽지 말고, 내성적으로 살지 말아라. 혼자 힘으로 잘 살아왔고 앞으로 더 잘 살 거라며 용기를 줬어요. 그 때 수양엄마한테 진짜 1원짜리 하나 안 들고, 옷 몇 장 들고 돈은 다 엄마한테 주고 맨몸으로 나왔어요.

첫번째 사고

나와서 공장 수위실에서 쪽잠자고 살았어요. 라면 하나씩 먹고. 일당 5000원이었는데, 남들보다 더 받는 편이었어요. 담배값 빼고 다 저금해서 돈이 모이니깐, 사글세를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 86년



말에 회사 앞 구로동에 처음으로 방을 얻었어요.

회사 친구 놀이 방이 없어 같이 살았는데, 87년에 물난리가 났어요. 잠을 안자고 퍼냈지만 못 당하고 물이 키높이로 차올라서 학교로 피신 가서 일주일을 생활했어요. 거기서 못살겠다 싶어 대림동, 보증금 50만원에 5만원짜리 2층집으로 갔어요.

첫 번째 사고가 났어요, 87년 9월 추석 전. 프레스 기계가 계속 말뽕이길래 반장한테 말했는데 안 고쳐주더라고요. 그날도 그 기계를 잡고 일하는데 어느 순간에 손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왼손이 없는 거예요. 왼손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없는 거야.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가락이 없어서 놀랐고, ‘아줌마 나 손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뭘 소리야’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사고였어요.

한강심심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하고 입원해있는 동안 회사 아줌마들이 매일 돌아가며 간병해 줬어요. 절단사고라 오래는 안 있고 한두

달 있으면서 물리치료 받고 그랬어요. 그땐 보상 이런 것을 모르니 하나도 못 받았고, 산재급여만 300만원 정도 받았어요.

치료 끝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일하는 데 큰 지장 없으니까.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좀 지나니까 라인 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라인 장은 작업반장인데, 이즈음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두번째 사고

프레스업종은 3D 업종이에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돈은 많이 못 받고. 그래도 이 손으로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계속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는 걸 보니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만 뒤야겠다 생각하고 사직서를 썼는데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던 사람들도 쉽게 그만두는데 내가 사직서 들고



가니까 바로 찢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내가 할 일은 책임감 있게 했어요. 내가 쉬는 날에도 나와서 일을 하니까 한마디로 일꾼을 놓치지 싫어서 그런 거죠.

92년,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그 때 토요일인데 전날 금요일에 안 쓰는 금형을 나 혼자 200개 가까이 정리했어요. 무지 힘들었어요. 무거운 건 100키로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무리해서 일하고 나서 다음 날 안 나가고 쉬어야 하는데 내가 안 나가면 계장이 혼자 고생하니까 힘들지만 무리해서 나갔어요. 그날따라 내 라인 사람도 아니고 평상시 말도 잘 안하던 아줌마가, 나한테 와서 일 다 했으니 재료 교체해달라고 해요. 자동기계였는데 내 담당이 아닌데 나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작업을 다하면 찌꺼기를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서 실랑이 하다가 발로 클러치를 살짝 스쳤나 봐요. 클러치가 정상적으로는 덮개로 덮고, 안전센서가 세 방향으로 다 덮어야 되는데 그 기계는 센서가 앞에만 달려있었어요. 제품이 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은 소용이 없어요.

살짝 스쳤는데 기계가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오른손이 잘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팠어요. 피가 철철나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아줌마들이 놀라서 달려오고 병원으로 가고. 지정병원인 한강섬심병원으로 갔는데 뭘 이유 때문인지 대림성모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응급처치를 하는데 내가 내 손을 보니까 ‘이 손으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나’ 앞이 캄캄하고. 의사 다리 붙들고 ‘선생님 제발 이 손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빌었어요. 그러니 의사가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당신 그러길래 왜 다쳐서 왔냐’ 고. 의사가 그

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순간 의사한테 욕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약자이니 뭐라고 말 할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손 전체가 잘리고, 왼손은 1차사고 때 잘리고. 어찌 보면 하느님도 완전병신은 안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왼손 엄지 하나는 남겼어요. 이 왼손 엄지 없으면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지 하나가 남아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사고 후 나와 가족

아들 국이가 6개월 때 두 번째 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자포자기 생활을 2,3년 하니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번은 말다툼 끝에 아내가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오더니 폭 쓰러지더니 ‘야! 한ㅇ철이 너 이리와!’ 이러는 거예요. 소주 대병을 마시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진짜 놀랐어요. 내 이름 막 부르면서 ‘나는 너 보고 왔는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는 거예요. 나도 눈물 흘리고. 그렇게 힘든데 도망 안가고 같이 살아 준 거 고마워요. 한번은 당구장에서 당구치는데 아내가 오라고 전화를 두어번 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당구장으로 와서 애를 확 내동댕이치고 가버려요. 얘기가 우니까 내가 부여안고 우는 얘기 달래고 집으로 달려갔지, 똥배짱이 있다. 동지회원들이 앞에서 다 보고.

속 많이 썩혔어요. 돈이 없으니, 연금 한 달에 70만원 받을 때인데, 아들 진국이 돌 반지로 목걸이를 만들어 놔는데 그걸 전당포에 30만원에 맡겨서 노름하고 결국 못 찾았어요. 여관에 노름하러 한 번

가면 2, 3일은 집에 안가고. 노름이 사람 아주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담배에 찌들어서 피죄죄해서 아침에 들어가요. 한번은 내가 우산 들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우산을 뺏어서 때리는데 우산이 부러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타락도 많이 했어요, 자책도 많이 하고. 자살하려고 옥상에도 몇 번 올라갔어요. 환자복 입고 밖에 나가서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술도 먹고 그랬어요.

치료할 때 붕대를 푸는데 내가 내 손을 보니 눈앞이 꺼매져요. 세실리아 수녀님이 병원 방문을 오셨어요. 수녀님이 워낙 산재환자 많이 만나신 분이래 같이 얘기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수녀님으로 인해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하게 되고, 자고 있으면 와서 연습하라고 야단치고 그랬어요.

어린 아들 떠올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 처자식을 책임져야 하지 않나, 마음 고쳐 먹고. 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병원 내에서도 일부러 까불고 다니고, 신경 안 쓰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욕먹고. 담배 피다가 걸려서 욕 먹고. 일부러 그런 행동하고 다녔어요. 손에 대해 신경 안 쓰려고.

그러다가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많이 놀랐어요. 그때 못된 것, 당구 배우고 카드배우고 노름도 배웠어요. 난 절단이라 병원치료가 금방 끝나요. 물리치료 받으러 통원하면서 고대 병원 안에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동지회’ 였어요. 산재노동자협의회 만든 친구들이 다 동지회 출신이에요.



초창기 만난 사람들이 좀 지나니까 살길 찾아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발을 끊고. 자연스럽게 등지회 회원들이 산재노협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오전에는 우루루 몰려가서 물리치료하고 끝나면 족구하는데 점심 밥내기였어요. 우리가 족구하려는데 병원에서 테니스 쳐야 한다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병원장 면담해서 '우리는 환자인데 왜 못하게 하나' 따져서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밥내기해서 밥 먹고 오후에는 노름했어요. 우리 집 아니면 친구 집. 친구가 형이랑 살았는데 형 올 때까지 거기서 놀아요. 그게 하루 일과예요. 노름은 주로 카드. 100원짜리 카드노름. 100원짜리여도 크면 몇 십 만원까지 가요. 하루에 몇 십 만원도 잃고, 당구도 쳐본 적

이 없는데 손 다쳐서 병신 되고 나서 당구를 배웠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나왔어요. 치료 끝나고 집에 오니 내가 살던 집인데도 처음 오는 데 같고 낯설어요.

병원에서는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있으니 편하게 지냈는데, 집에 오니 집도 낯설고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남들의 시선이 무섭고 마음 아팠어요. 밖에 다니면 한참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애기랑 부모가 지나가다가 애기가 '저 아저씨 손 왜 저래' 하면 눈물이 나고. 계속되니까 거기서 적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당구장 다니면서 당구장 사람들이랑 노름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하면 나도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다친 사람들 말들어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생활을 2년 정도 했어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바닥나니까, 후회한들 소용 있겠냐 깨달았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는데 손이 이러니 할 수 있는 게 뭘까.

보상금

전세 800만원이던 집에서 2차 사고 직후까지 살았어요. 많은 돈을 모으지도 못했어요. 100만원 정도 현금이 있었어요.

2차 사고가 난 후, 회사에서도 아무 말 없고 나는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데 서울대 장호일이라는 학생이 와서 컴퓨터를 가르쳐 주었어

요. 그래서 직접 산출 내역서를 뽑아서 회사로 갔더니, 그때 8500만원 정도 산출이 나왔는데 회사 전무한테 갖다 주니까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갔더니 나는 운이 좋은지 내가 다니던 기간에 합의 본 사람이 없고 다 민사로 갔대요. 내가 92년에 사고 났는데 회사가 95년에 부도났어요. 91년에 17살 애가 손목이 절단돼서 타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랑 처음 얘기 할 때는 전무가 5000을 말해요. 얘기하면서 금액이 점점 올라가서 결론적으로 7000, 퇴직금 700해서 7700으로 합의했어요. 그 많은 사고에도 합의 안 해주던 회사가 쉽게 합의를 해준 건 내가 그만큼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기에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새집 전세 6000만원에 가고, 1700만원은 홀라당 날렸어요. 친구 빌려줬는데 연락도 없는 거예요.

손가락 없이 할 수 있는 일

우연히 구로시장 내에서 석유 가게 일을 하게 됐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취업했는데, 처음엔 가게에서 전화 받는 일을 했는데, 95년도는 도시가스 사용하기 전이니까, 석유가 하루 300통~500통정도가 나가요. 한 통에 50리터씩. 겨울에 석유, 여름엔 얼음을 팔았어요.

그때 가게에 있는 형하고 사장하고 다른 사람 하나가 배달을 다녔는

데, 그분들이 그만두니까 오토바이를 배워서 내가 직접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엔 얼음을 톱으로 썰어서 배달하고, 1년 정도 했는데, 월급 80만원을 받았는데 일한 거에 비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다고, 이렇게 주면 나 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사장은 80만원씩 주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받는 게 싫어서 나왔어요. 내 사정을 알고 동정을 한 게 아닐까. 내가 일한 것 보다 많이 받는 거는 내 마음이 용납을 못해서 그만두었어요.

다른 산재노협 친구가 목동에서 우유배달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둘이 97년부터 목동에서 우유 배달을 했어요. 월 40만원 정도. 새벽에는 우유배달, 낮에는 산재노협 나가서 일하고. 산재노협에서는 노동조합 회보를 발송해주는 재정사업을 했는데, 우편발송 사업. 재정사업을 94년인가 95년부터 했는데 처음 할 때부터 같이 했어요. 새벽에 우유배달하고 잠깐 자고 산재노협 나가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우유배달, 신문배달을 3년을 또 했어요. 어떨 땐 잠 한숨 못자고 배달일 끝나자마자 발송하러 가고. 신문배달이 좋았어요. 신문배달로 60만원 벌었어요. 그 구역이 알바생 둘이서 4시간을 하던 곳인데 나는 혼자 2시간도 안 걸리고 했으니까요. 막 뛰어다니고 계단도 뛰어다니고. 좋았어요. 단지 밤에 잠을 못자서 낮밤이 바뀐다는 것이 안 좋았어요.

신문배달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분들도 새벽에 일하고 다 낮에 직장 또 나가더라고요. 내가 손이 이러니까 겨울에 눈 오면 힘들었어요. 눈이 엄청 많이 올 때 신문을 산처럼 싣고 가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두고 와버렸어요. 그 길로 그만뒀어요.

손이 이러니까 이만한 데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찢린 손가락 말도 못해요, 시려워서. 집에 돌아오면 얼었던 곳이 녹으면서 시렵고 아파서 눈물이 나요. 웬만하면 아픈 거 잘 참는데, 손도 한심하고 성질도 나고.

신문 60만원, 연금 100만원, 재정사업해서 시급제로 30만원 정도 받았어요.

자활공동체와 산재노협

노동조합에서 신문을 만들면 전국의 지부, 조합원들한테 발송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원들 참여가 하나도 없었고, 대학생들이 와서 많이 했어요. 자원봉사로. 끝나는 시간은 대중없어서 새벽에도 끝나고 그랬고요. 회원들이 나와도 몇 명 뿐이라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고 7명 정도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나 혼자 반대했어요. 그때 내가 형편이 무지하게 어려웠거든요. 연금 나와도 20일쯤 되면 바닥이 났으니까.

그래도 난 돈 주는 것을 반대했어요. 돈에 연관되기 시작하면 뭐든지 돈에 연결되니까. 사무실이 돈에 연관되면 안 된다고, 혼자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돈을 주게 된 것이 2000년 하반기부터 시급이 나가기 시작했어

요, 시간당 5000원씩. 그때부터 사무실이 돈에 연관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2000년 넘어서니까 학생들과 연대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회원들을 불러서 시킬 수밖에 없고 돈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레 오게 되고. 10명이상의 사람들이 시급을 받아갔어요. 나도 그 돈 받으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달라지는 게, 그 전까지 안 오던 사람들이 돈 주니까 막 오더라고요, 너도나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사람들이. 난 이런 걸 염려했는데 지금도 내 생각은 산재노협 잘못이 돈을 주



게 된 거라고 봐요.

2000년 산재노협 조직부를 맡았는데 사교성도 안 좋고 술도 많이 안 하지만 거의 떠밀려서 조직부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성 3명이 같이 했는데 조직부 활동을 무조건 ‘안 오는 회원들을 끌어들이자’ 로 해서, 나 역시 얼굴 못 본 회원들에게 전화하고 찾아 가겠다 해서 2명씩 서울, 경기, 지방으로 몇 달 동안 찾아다녔어요, 4명이서. 그러니까 수련회나 행사 있을 때 40명이 모여요. 회원들 생일엔 축전도 보내고. 반응이 좋았어요. 얼굴 처음 본 회원이어도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좋아하고. 회원이었나 생각하던 사람들도 진짜 자주 왕래하고 회비내고. 역사기행도 자주 갔어요. 모든 비용을 사무실에서 부담했어요. 돈이 있었으니까, 버스 대절해서 다니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병원방문해서 상담해보면 마음에 와 닿는다고 그래요. 난 비슷한 입장이니까. 얘기하기도 훨씬 편하고 마음에 와 닿는다고. 우리 때는 단체도 없고 병원사무장도 왕래가 없어서 병원 산재환자들이 노동법, 복지공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보고 ‘재네 누구야’ 이런 식이에요.

추억으로 남은 시간들

산재노협이, 92, 93년에는 완전 지하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구로2동

지금 우리은행 맞은편에 있었는데, 조직체계도 크고 모든 조직이 있어서 교육부, 선전부, 조직부가 다 있고, 그만큼 사람도 많았고. 정기모임에 가면 인원이 대략 4.50명 정도였어요. 해태제과가 있었으니까 아가씨들도 20명 넘게 있었어요.

산재 입은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완전 지하라서 물도 펌프기 돌려야 했어요. 지하실의 단점이 물이 역류해서 물바다도 몇 번 되고,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요. 월급만 가져갈 게 아니라 돈 좀 모아서 좁은 사무실로 옮기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혼자 의견이니까 항상 묵살되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은 산재노협이에요. 나는 산재노협에 대한 책임의식, 자부심이 강해요. 일이 있을 때 마다 앞장은 못서지만 뒤에서 동참했다는 것, 지금 회원들은 많이 있지만 자주 못 오는 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 오면 생활이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사무실에 못 오면서 한 두번 다른 일과 겹치면 아예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산재 치료하면 먼저 먹고 살 일 걱정이죠. 뭐 해 먹고 사나, 취직이 힘들니까. 기술도 없고. 나도 경비자리 아는 사람 소개로 가서 내 손보더니 벌써 안 된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데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애상태만 보고 안 된다는 시각을 갖고, 우리는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산재노협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무사히 왔는데 그래서 자부심도 있는데 지금 너무 작아져서 가슴이 아파요. 다친 사



람들이 너무 마음의 상처들이 크고 개개인의 성격이 강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해도 되지만.

발송사업을 자활공동체로 등록한 게 더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자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살림에 보탬이 되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공동체에서 일하다가 느낀 것은 다른 회원들은 들어올 수 없고, 초기 목적인 산재추방, 병원방문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본의 회사로 흘러간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초심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돈하고 연관되어 사람들의 욕심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고,

배려가 없어지고 책임감도 없어지고 일하는 것도 그냥 일이 있으면 하고 그런 실정이 되었어요. 협동 단결이 너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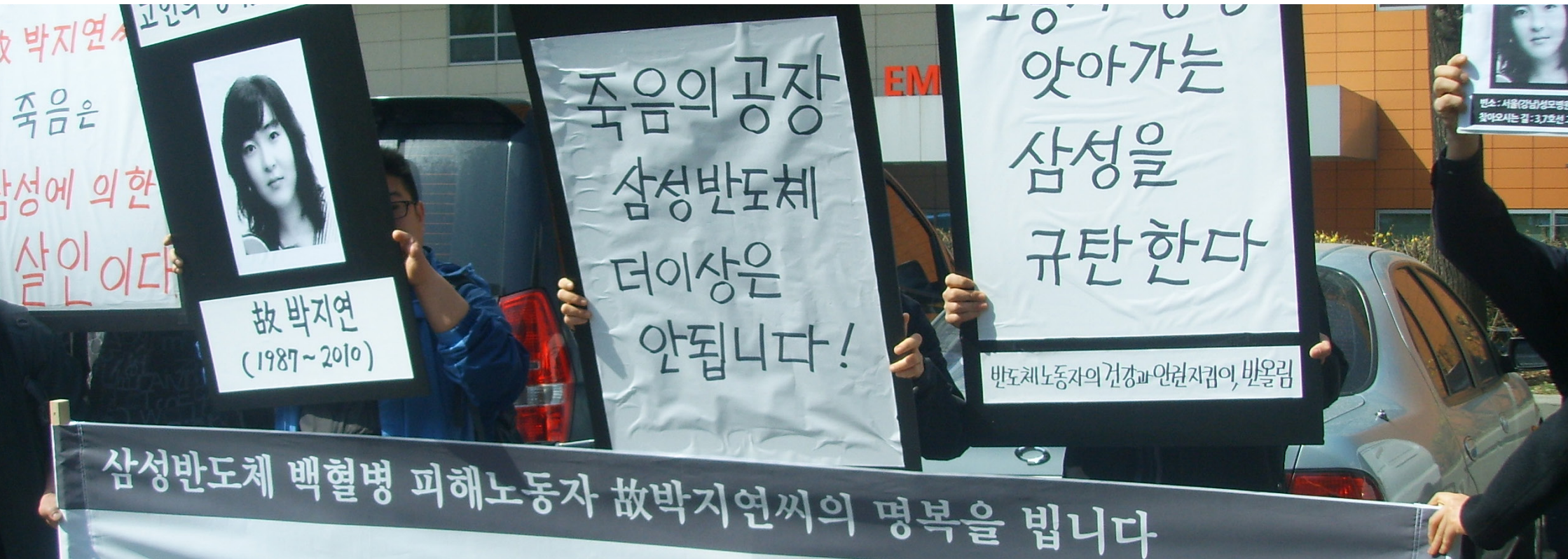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일했는데 자활공동체 만들게 되면서 돈을 나눠야 하니 학생들이 오는 게 점점 사라졌어요. 학생들이 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학생들이 특히 의대생들이 오니까. 공부만 하는 애들인데 서울대 강의실에서 의대생 200명에게 내 손 보여주며 내 인생 얘기해주고, 그런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공유되는 게 있으니 굉장히 좋았어요. 학생들이 축제에서 번 수익금도 사무실로 기증하고 그랬잖아요. 젊은 애들이랑 어울려서 얘기하고 술도 먹고.

작업 초창기에는 회원이라 해봤자 나랑 한 두 명, 그 외 전부 학생들이 일했어요. 작업방법도 몰라서 완전히 구닥다리로, 바닥에 봉투 짚어놓고 양편테이프 쪽 붙이고. 능률도 안 오르고 모든 것 다 수작업으로 했어요. 지금처럼 작업이 많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학부모한테 전화 와서 30분씩 욕먹었어요. 귀한 자식 비싼 등록금 대서 공부시키는데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정하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주었어요. 다음 작업일정을 미리 알고 알아서 와주고 그때 애들이 참 고맙고 미안했어요. 작업이 늦게 끝나 집에 못가는 애들은 우리집에 데리고 가서 재우고 아침에 밥 해먹이고 보내고, 진국엄마도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런 학생연대가 2001년 되니까 사그라 들었어요. 2002년 노래패 애

들이 와서 노래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는 평생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우유배달하면서 노래 연습하고 그랬어요. '착한사람들에게' 라는 노래, 중앙대 가서 산재노협 6,7명이 노동자대회 전야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노래하는 것 사람들도 보고 놀랐대요. 내가 노래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내 기억으로 그게 학생들과의 연대의 끝이에요.



[부록] 산재노동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내 시간은 그 봄에 멈춰있어요

(노동자 박○일의 이야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원 박○일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던 박○일씨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시작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물세 살, 공장에서 한 손을 잃고 희망과 절망을 오간 병원생활, 생활고, 산재노동자 선배들을 만나 힘을 얻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 시간은 그 봄에 멈춰있어요 노동자 박○일의 이야기

내 이름은 박○일

이름은 박○일, 1976년 3월 출생. 전라북도 완주 거기서 10살까지 살았어요. 부모님과 누나 둘, 남동생 하나 있어요.

86년에 가족이 서울 올라와서, 이수역 근처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는 집안 형편이 좋았어요. 동네에 철거민 싸움이 있어서 구경 다닌 기억이 나요. 중학교까지 사당동일대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레슬링 선수생활을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레슬링 선수로 생활했어요. 좋은 성적도 거두고, 아마추어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되고요. 레슬링은 프로레슬링 아니면 아마추어, 학

생은 다 아마추어라고 불러요. 전국체전 나가서 우승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상비군끼리 하는 덴마크시합에 한국대표로도 나갔었죠.

고3때 운동하면서 맞는 게 싫어 반항을 했어요, 체대를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자격증 여러 개 따고 그랬어요. 고등학교가 공고였는데 용접, 선반, 기계조립, 자동차 정비 2급을 따고, 운동하면서도 자동차 정비하는 게 재미있어 보였어요. 기계과 선생님이 그랬어요, 뭘 하든 기계정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용접, 선반은 자격증 쉽게 따고. 2시 반에 학교 마치고 운동 끝나면 6시, 그때부터 자격증 공부하고,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자격증을 8개를 땀어요. 그때 내 꿈은 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게 꿈. 맞는 게 싫어서 레슬링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기 시작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가야했는데 영장이 안 나와요. 고2부터 실습 나가면서 밀링을 배웠는데, 군대 가려고 해병대 지원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다음해 지원하려고 일년 기다리는 사이에 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부평에 있는 대우 에스페로 라인공장이었어요. 조립하는 일인데, 문짝에다가 나사 3개 박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자격증 따고 자동차 만드는 게 꿈인데 하루 종일 볼트작업만 하려니 힘들어서 한 달 만에 그만두었어요. 그 전에 학교 실습 때문에 다닌 직장

이 있었는데, 첫 직장은 안산에서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기계차의 캡(운전석 뚜껑)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1년 반 있었는데 사장이 차별이 심해서, 임금도 차이가 크고. 나는 월급이 60만원 정도였어요. 일반 대학 나온 애들은 180만원 받는데 나는 공교 졸업하기 전이라고 60만원밖에 안줘요. 나중에 학교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60만원을 주더니, 내가 임금 올려 달라고 하니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1년 반 일하고 나왔어요. 주는 대로 받았는데 일 년 넘는 동안 몰랐어요.

다른 곳에 가니까 85만원 준다 길래 그리로 갔어요. 7개월 있다가 회사가 어렵고 임금도 체불되어서 나왔어요. 네 번째 직장이 기아모텍. 하청업체 자동차지그(자동라인 설치작업)를 했어요.

그러다가 영장 나와서 방위산업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사고

98년 4월, 인천남동공단 업체에 밀링으로 들어갔어요. 프레스기계가 10대 있었는데 나더러 프레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이. 그래서 난생처음 프레스를 다루게 되었는데, 첫날 하루는 공장장이 하는 거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고, 다음날 혼자 기계를 잡았는데 250톤 짜리 프레스기계였어요. 내려 누르는 힘이 250톤이에요. 탱크 만드는 공장이니깐. 베이스가 너무 커서 금형틀이 저 안쪽에 있어요. 제

품 꺼내려면 손이 안 닿으니까 몸이 들어가고 머리 들어가서 손으로 끄집어내야 하거든요.

원래는 양손버튼으로 하는 작업인데 9시부터 작업해서 9시 57분에 화장실 급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마저 찍어야지 하고 찍었어요. 오작동이 발생해서 제품 넣고 있는데 프레스가 내려온 거예요. 다행히 머리는 빠졌는데 손이 미처 못 빠져나왔어요. 250톤의 힘으로 누르는데 물체의 두께가 2mm가 되요. 거기에 손이 끼있는 거예요. 머리는 빠졌으니 살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기계 멈춰 달라고 했는데, 프레스 기계가 올라가는데 손이 기계에 달라붙어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일단 공단 안에 작은 병원으로 갔는데, 장갑을 낀 상태였고 손이 안 보이는데 그대로 갔어요. 병원 가기 전에 공장장이 사장에게 보고하는 30분 동안을 기다렸어요. 학교선배가 옆에서 내 손 상태를 보고 위험하겠다고 말했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주저앉아 기다렸어요.

의사가 처치 시작하면서 나더러 손 보지 말라고, 고개를 돌려라 했는데, 그래도 나는 봤어요. 장갑을 잘라서 열었는데 바닥에 통 위에 손을 대라고 해서 대니까 피가 두 통이 쏟아졌어요. 내가 눈으로 보니 손이 닭발처럼 보였어요. 뼈가 보이고 힘줄이 보이고. 응급처치만 하고 수술하러 큰 병원으로 갔어요.

동인천 길병원으로 갔는데 전신마취하고 나서 부모님이 왔어요. 부모님 왔는데 의사가 손목 절단해야 한다고, 부모님이 절대 반대해서,



부모 동의가 안 되어서 부모님이 알아봐서 그때 아버지가 광명성에 병원을 알고 수지접합을 잘 한다길래 구급차로 그쪽 병원으로 이송 되었어요. 그때 나는 마취상태였어요.

저녁 7시 50분에 광명성에병원 도착해서 거기 주치의가 호출되어 와서 보고 수술을 바로 들어가서 새벽까지 7시간 반 정도 수술했어요. 손목은 절단하지 않고 수술하는데 국소마취만하고 있어서 나는 정신이 있었어요. ‘나를 믿을 수 있냐’ 고 의사가 나한테 물었어요. 잘못되면 손목까지 절단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일 수 있는데 내가 한번

해 보겠다 동의했더니 손을 다 살렸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2,3,4,5 번 손가락이 뿌리 부분은 뭉개지고 손가락 끝 반만 남아있는데 뼈에 철사를 붙여서 손을 일단 다 살렸어요. 회복되면 손이 다 움직일 거라 했는데 결국 골수염이 생겨서 뼈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지속되면 손목까지 올라가서 심하면 손목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때 수술 후 주치의는 미국에 며칠 가고 인턴들이 치료를 해주는데 내가 염증이 느껴졌어요. 손가락 수술부위가 간질간질하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처치해주는 인턴에게 말했는데 인턴은 괜찮다고 소독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2주를 보내고 주치의가 돌아왔는데 와서 보더니 ‘수술실로 가라. 미안하다. 골수염이 생겼는데 잡았어야 했는데 치료를 못했다, 수술실 가서 수술하자’ 그래요.

잘못된 수술

이때 많이 좌절했어요. 병원에서 처음 좌절했어요. 손가락을 쓸 수 있다는 희망에 술담배도 끊고 있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 손가락이 안이 뼈가 없어 텅 비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걸 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 의료사고라고 싸우기도 그렇고. 의사가 손목을 살린 것이 고마웠고 손목 살아있는 게 감사했고 그래서 그냥 가만 있었어요. 뼈 빼내니까 그러면서 관절까지 뽑으니까 그때부터 손가락에 강직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생 장애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힘들어서, 자살생각 많이 했어요.

3,4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산재노협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고 나고 수술 받은 후 손가락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희망적이었는데, 손가락 뼈 뽑혀 나가는 거 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절단했다면 희망이 없었을 텐데, 장애는 남겠지만 움직일 수 있다, 컵을 잡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그런 희망이 사라지니까 절망한 거예요.

자동차 일 못하지, 장애가 왔지, 밖에 나가서 부모님 볼 날이 없고, 제일 힘들었던 게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그전에는 잘 지냈고 집에도 놀러 다니고 수술 할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23살 때예요.

4월에 병원 들어가서 30번 정도 수술을 했어요. 병원생활을 6개월 했어요. 10월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8월에 산재노협이 병원 방문을 왔어요. 2,3명이 왔어요. 나도 상담을 받았어요. 산재 이후에 휴업 급

여 어떻게 할지, 산재처리는 됐지만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사업주가 내 잘못으로 작성 했더라고요. 그때 산재노협에서 상담해주면서 서류 꼭 확인하래서 그제야 봤더니, 다 내 잘못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다 바로잡고, 휴업급여 신청하고.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상담을 받았어요. 그게 나중에 민사할 때 도움이 컸어요. 산재노협이 고마웠어요.

10월에 퇴원해서 산재노협 사무실에 갔어요. 처음 산재노협 사무실 간 날, 그때 사무실은 구로 동부슈퍼 지하에 있었어요. 사무국에는 3명이 있었고. 형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었고, 주방에서 막걸리 마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 입구에 컴퓨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리고 있지? 하면서 지나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쪽 손이 없는 사람이, 그게 한영철 형인데, 보니까 마우스를 두 손으로 잡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진짜 빨라요. 나보다 손이 더 심한 사람들이 산재노협에서 일하고 상담 다니고 그



러더라고요.

2007년까지 재요양 했는데, 산재노협이 고마운 조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산재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산재노동자 형들

퇴원하고 통원치료하면서 산재노협 사무실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편발송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노총 것만 있었어요. 병원 끝나고 갔는데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학생들이 와서 8명 정도 있고, 후원회원들이 몇 명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지하가 깊었는데 신문을 던지면 같이 옮기고 작업했어요. 같이 작업하는거 보고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았어요. 편하게 장애에 대해 신경 안 쓰고 대화하고 농담하고 그랬어요.

일 끝나고 작업은 밤 11, 12시까지 작업하고 나서 막걸리 한잔씩들 하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남에게 손을 보이기 민망하고 그랬는데 그게 깨졌어요. 학생들도 내 나이 또래였어요. 같이 어울려 웃고 얘기 하는 것을 보니까 사무실 오는 게 너무 편했어요. 밖에서는 손을 감추기 바쁘데 사무실에서는 오픈하고 같이 농담하고 스스럼없이 지내서 너무 좋았어요.

내 장애, 대인기피증이 빨리 완화되고, 더 힘을 얻게 되고,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도 나한테는 산재노협이 이런 곳이에요. 산재노협 생각하면 그 기억이 제일 나요. 감사한 사람들이예요. 같이 할 사람들이 있는 공간.

99년부터 재정국장으로 사무실에서 상근을 시작했어요. 좀 부딪히는 게 돈이 생기게 되니까 회원들 간 마찰이 생기고,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재정국장 하는 것을 두고 나이도 어린 놈이 산재노협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산재노협을 나오게 되었어요. 1년간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 자폐친구들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간사로 일했어요. 거기는 유실물을 받아서 장애우들이 손질해서 토요일 서초구청 벼룩시장에서 파는 일을 했어요. 유실물 받아온 걸 세탁하고 판매하는데, 그 분들이 직접 판매하고 사회적응력 키우는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집안 형편 어려워진 이야기

집이 고깃집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했어요. ‘날으는 우까페’라는 고깃집이었어요. 그때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서 집안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 돈을 갚느라 살던 아파트 팔고, 의왕에 사고 보상금으로 산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팔고 다 팔았어요. 빚쟁이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아버지가 지병에 당뇨에 겹쳐서 2005년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니까 아파도 병원 안 갈려고 해요. 작

년에 월 86만원 받고 장애연금 10만원씩 받았는데 이중 40만원은 여기저기 후원비로 나가고 나머지로 생활했어요. 엄마의 병원비만 작년 한 해 동안 천만원 넘게 나갔어요. 누나와 남동생은 약간씩 용돈 보태오는 정도예요. 집안 경제문제는 나 혼자 하려니까 힘든 부분이예요.



자활공동체라는 새로운 활동

고깃집 하면서 산재노협에서는 회원활동만 했어요. 자주 갔어요. 그러다가 2004년 재천이 형이 대표를 한다 그러길래 같이 사무국장하자,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때 사무국장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2004년부터 우편발송 자활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걸리니까 산재노협 활동이 뒤로 빠지고, 병원방문 잘 안하고 산재노협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활공동체가 산재노협 회원들이 현장 복귀할 때까지 일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런 취지였는데, 자활공동체가 인원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원금을 주는데 종업원 수가 일정부분 확보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인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6개월씩 있겠다고 동의하고 하기로 했던 건데, 나중에는 신입회원들이 와도 계속 종업원으로 있으려고 하고,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산재노동자가 복귀할 수 있는 공간, 신입회원들도 받고 사무실은 쉽터로 하자는 것인데 우편작업만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늘지도 않고 사무실에 더 안 오게 된 거예요.

상담을 오는 분들도 작업하는 공간 말고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니까. 예전처럼 친절하고 웃으면서 대하는 게 아니니까, 일없으면 자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회원이 발송작업 도와주면 면박을 주고, 알려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가기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얘기할 공간도 안 되고요, 기존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있으니까.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는 산재노협이 공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려면 만나는 건 병원에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느니 좋아했어요. 그런데 병원방문을 안가는 거예요. 자활공동체 있어서 안 좋은 것은 사무실 내분이 생겼다는 것이고, 신입회원과 얘기할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재활은 산재노협

나에게 재활은 산재노협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관련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못 들었어요. 옛날에는 공단에서 운전면허도 했는데

없어지고, 도장 파는 것도 없어지고, 몇 명만 연초에 뽑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안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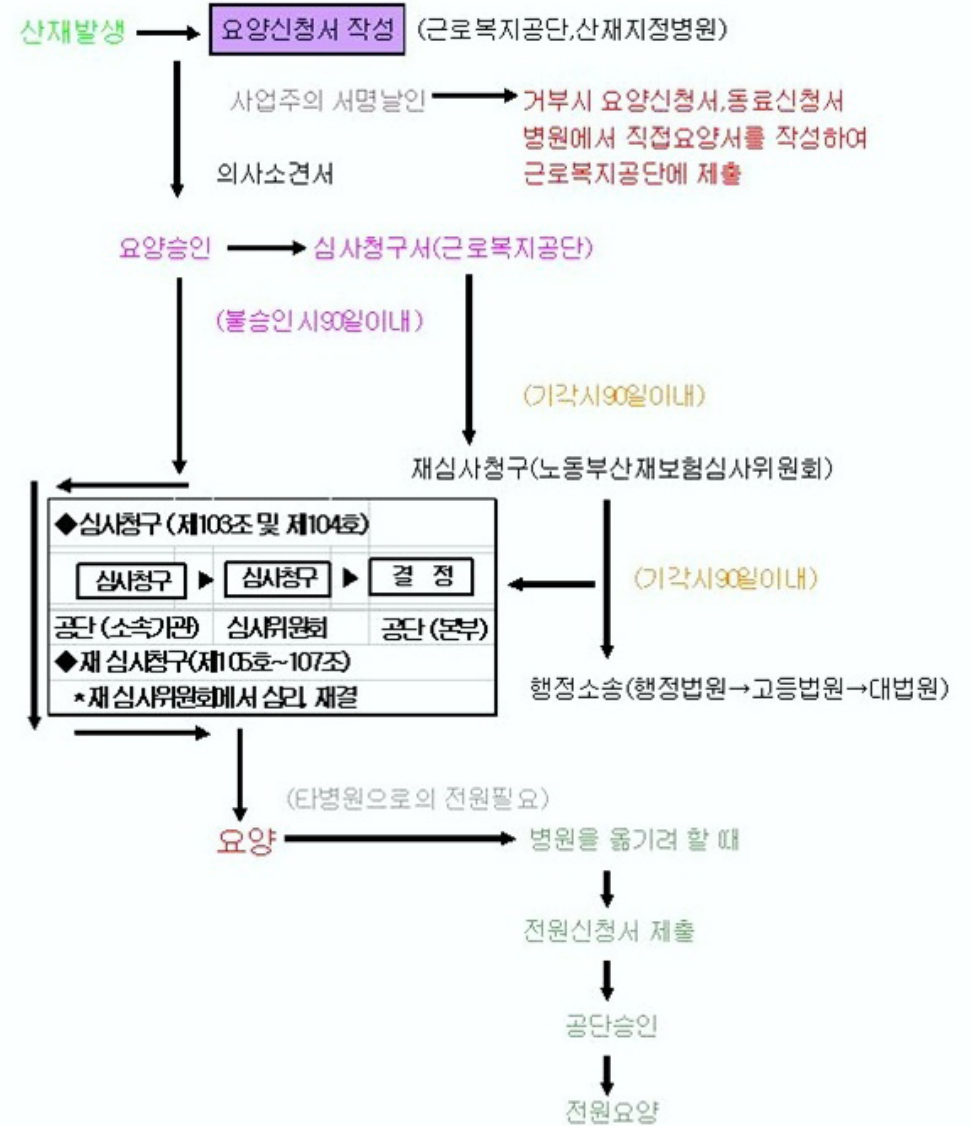
공단에서 재활 받은 거 없어요. 공단직원으로부터 재활 관련한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병원 다니면서 다른 산재노동자들 보면서 알게 된 것 뿐이에요. 나중에 알게 돼서 공단에 전화해보면 ‘연초에 끝났습니다’ 는 답 뿐이에요. 공단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재활이란 게 없었어요. 오히려 산재노협이 ‘공단에 이런 거 신청하세요’ 알려줬어요, 운전면허, 대부사업 같은 것들.

나는 방위산업체에서 68만원씩 받았는데 사고 후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70% 나온 게 48만원이었어요. 그때 최저보상액이 22,500원인데 나는 11,000원 받은 거죠. 최저보상액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48만원 받으니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건 교통비 겨우 될 수준, 엄청 불만이었어요. 임금을 100% 줘도 살기 힘든데 말이죠.



〈참고〉
산재보험 신청절차

▲산재 요양 신청 절차 (통상적인 절차)



‘일하는 사람의 인권’ 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 개의 진료실 가이드

펴낸날 **2013. 12.**

펴낸이 **노동건강연대**

디자인 **GRAPHE STUDIO**

펴낸곳 **노동건강연대**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2-25 4층**

전화 **02-469-3976**

이메일 **laborhealth@yahoo.co.kr**

홈페이지 **www.laborhealth.or.kr**